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1월 6일 (제117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매사 점검하라

금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어린 영혼들을 생각할 때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희생자 가족들의 애틋한 심정을 무어라 위로 하겠는가. 이 황망한 상황을 맞아 졸지에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통한 마음을 어 디에 비길까.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마음 이 무겁다.

우리는 늘 사후약방문적의 삶을 산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일을 당하고 나서야 조치한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지혜로 운 자는 미리 대처하고, 미리 점검하는 자 가 아니겠나. 십만 명가량이 몰릴 것을 예 상했다면 그에 맞는 대비책이 따라야 했다. 항간에서는 안전대책 부실이 낳은 예고된 재난이라고도 말한다. 뒤늦은 후회와 경책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만, 우리 모두가 다 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점 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사고는 ‘설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 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教師) 삼아 무슨 일에도 철저하게 대비 해야 한다. 무슨 일에도 지나치다 싶을 정 도로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두 번 다시는 이런 참혹한 변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11월 5일에 인천교회에서 있는 ‘World Praise 경배와 찬양 예배’에 만전 을 기하라고 지시했고, 주의 종들에게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지시했다. 대비는 철저 할수록 좋다.

아울러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 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라”(롬12:15)고 말씀하셨다. 유족들에 대 해 애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들 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읊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은 먼저 읊을 위로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들은 충고만 했다. 그들의 충고는 다 옳은 것이지만, 하 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나 무라셨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 곤경 과 불행으로 우는 자들과 같은 슬픔을 갖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 며 모든 유족들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 기를 함께 기도하자.

문제를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하늘의 별만 쳐다보며 가는 사람은 땅의 지푸라기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말 이 있다. 아무리 꿈과 이상이 좋아도 투 철한 현실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충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 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 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 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 스로 구원하되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 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 냥군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 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 스로 구원하라”(잠6:3~5). 잘못을 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 를 구하여 상대방부터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이다. 자존심을 버리고서라도 사법 처리의 그물에 걸리지 말고 빠져나오는 게 지혜란 말씀이다.

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 지가 되셨습니다(요1:12~13).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 하며 무릎 꿇는 당신의 자녀들을 모두 품 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사1:18).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눈 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당신 의 뜻조차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히스기 야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네 집에 유언하라’(사38:1)고까지 하셨지만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에도 즉시 뜻을

네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받아라

봉우 이초석 목사

이것이 대인(大人)의 길이다

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 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 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 일 못할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 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찌니라”(눅 14:28~32). 현실 파악을 명확히 하고 대처하라는 말 씀이다. 내가 아직 역량이 부족한데 의욕 만 앞서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다. “너를 송사하 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 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 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 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 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5:25~26).

잠언에도 말씀한다. “내 아들이 네가 네

목사님도 교회 내에 부채 문제로 다투고 시험에 드는 사건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 하신다.

“돈을 꾸고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면 피 하거나 숨지 말고, 채권자에게 찾아가 솔 직하게 사정을 말하고 탕감을 받든지, 기 한연장을 받든지 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뭐 말라죽은 겁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 도하고 찾아가 선처를 구하니 오히려 상 대가 감동을 받고 도와주는 역사도 실제 로 있었습니다. 죄 앞에 담대하라는 게 무 슨 뜻입니까? 피하여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용서를 구하며 받아야 할 죄값이 있 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마음의 평안을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마 음을 쏟아내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 으십니다. 어느 부모가 잘못했다고 용서 를 비는 자녀를 내치겠습니까? 예수 그

돌이키시고 수명을 15년 연장해주셨습 니다(사38:5).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딱 정해놓았던 한나였지만, 그녀의 절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태를 열어주시고 사무 엘을 주셨을 뿐 아니라(삼상1:20), 세 아 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하셨습니다(삼상 2:21).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던 것도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역전의 역 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하 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통하며 매 달리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부 립절의 역사가, 죽을 것 같았던 현실이 응 답의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놀라운 역사 를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역전되 리라!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2022 추계산상집회 11월 28일(월)~12월 1일(목)

장소: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14:18)

신뢰구축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하나님께 신뢰받고 사람에게 신뢰받자.’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부동(不動)의 자산입니다. 약속은 맺을 약(約), 묶을 속(束)으로, 너와 내가 언약하고 서로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현대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기반이 되는 사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의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재력가가 그에게 흔쾌히 거액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회사가 안정권에 들었을 무렵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우리 장로에게 돈을 빌려줘서 고맙다.’ 했더니, 그분 말씀이 “목사님, 고마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장로는 정말 반듯한 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겠지요. 그가 평소에 쌓아놓은 신뢰 덕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은 생명이다 약속을 꼭 지켜라

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며 그를 자랑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는 ‘아멘’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히 11:17). 이 사건으로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에 대해 나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 인해 다윗이 곤경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기꺼이 그를 돕겠다는 것이며, 다윗은 장차 요나단의 후손을 돌볼 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이 약속대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격노를 사면시켜 다윗을 피신시켰고, 십 황무지에 도망가 있는 다윗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그런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이제 다윗이 약속을 지키는 차례입니다. 사울의 집이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 데려와서 그를 왕자처럼 대접했습니다(삼하9).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캠핑 가자.” 했던 자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다음에 내가 밥 살게.” 한 친구와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못 믿

을 아빠 엄마, 못 믿을 친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별거 아닌 약속인데요.’ 하십니까? 아닙니다. 작은 약속도 못 지키는 자가 어찌 큰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당신은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이 바닥을 친 겁니다. 다음에 아이들에게 ‘주말에 영화 보자.’ 하면 아이들 반응이 “거짓말! 또 약속 안 지키잖아.”라고 할 겁니다.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나팔수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은 믿지 마라.’ 할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루과이의 파비안을
생각합니다. 우루과이 집회 중 방송국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을 운영하고 있는 다니엘 목사의 소개로 우루과이 상공회의소장인 파비안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파비안은 숙소 근처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 시간인 12시까지 도착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교통이 막히는 바람에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가려면 30분 정도 더 걸리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일행에게 그의 말이 왔으면 그가 온 것이니 차분히 기다리자고 말했는데,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캐주얼 남방에 재킷을 걸친 한 중년 신사가 두리번거리며 들어오더니 저에게로 다가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은 후 옷을 갈아입고 가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바로 약속 장소로 달려온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그의 출현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역시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생명입니다. 제가 사랑하던 스승인 김기동 목사님은 저를 위해 평

생 기도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분이 약속을 지키심은 제가 어려울 때면 만나서 조언과 위로를 해주셨음이고, 꿈에서까지 찾아와 지혜의 말씀을 나눠주심입니다. 저도 그분이 돌아가신 후 약속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위해 평생 기도해주시기로 말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고, 일평생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2,500

가지의 약속을 주셨고, 그중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 객원컬럼 ::

거절의 용기

거절은 죄가 아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거절하는 사람의 자유이고 권리일 뿐이다. 어쩌면 거절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부탁하는 이에게 빨리 다른 일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눠주기를 청했을 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은 자칫하면 자기들까지 모자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중히 거절한다. 어서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슬기로운 자들이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미리미리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목적을 갖고 준비한 기름을 합부로 남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준비 잘해놓고 인정 때문에, 남 생각하느라, 좋은 사람 소리 들으려고 목적을 상실하고 남에게 나눠주어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본다. 예를 들면 노후준비, 결혼준비, 사업준비하려고 애써 준비해놓은 물질을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급하다며 빌려달라면 거절 못하고 내주었다가 낭패 보는 경우다.

요셉이 풍년 7년 동안 애쓰고 힘써서 애굽 전국에 곡물을 가득히 모아 흉년을 대비했다. 계시대로 7년 흉년은 시작되었고, 백성들은 요셉에게 와서 곡물을 사갔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돈이 다 떨어지자 요셉에게 와서 곡물을 그냥 달라고 요구한

다(창47:15~16).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다. 돈이 없으면 대신 짐승을 가져오라 한다.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을 가져오고 결국은 땅문서, 자기들의 생명까지 바쳐 바로의 종이 되기로 하고 곡물을 받아가 생명을 부지했다. 요셉은 풍년이 오자 이미 국유화해놓은 땅을 소작 형태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20%의 토지세를 내는 토지법을 세워 세금 20%를 거둬들인다. 이 요셉은 나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일까? 전혀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거절하셨다. 다윗의 자녀를 위한 기도, 바울이 가시를 빼어달라는 기도, 마음에 없는 가인의 제물, 바리새인의 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을 거절하셨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자청했고, 바울도 본인의 유악한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발견되 고자 배설물로 여겼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본인들을 총애했던 느브갓네살 왕의 청을 거절하고 목숨 걸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 아름다운 거절, 거룩한 거절이다.

좋은 사람 되려 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거절할 것은 거절하라.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보다 분명하고 정직하다는 소리를 들어라. 죽 썰서 개 좋은 일 시키고, 남을 원망하며 한탄스러운 인생 살지 말고 때때로 용기를 내어 거절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바라며...

이시대 목사

:: 신앙논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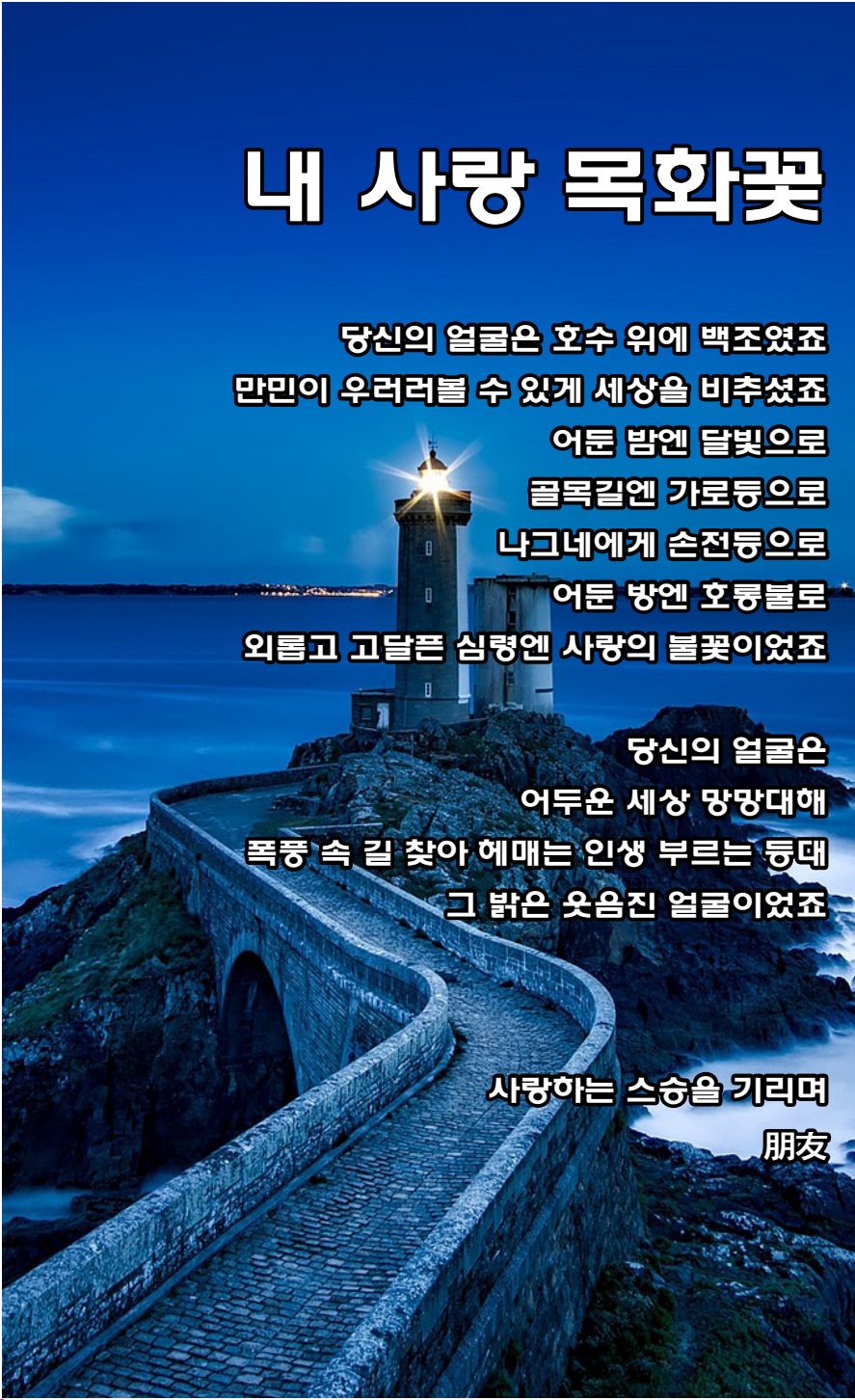
명문(名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제가 학생처장으로 있는 예수중심제자신학원(이하 신학교)은 2학기에 접어들면서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개강 전부터 기도원에서 금식수련회를 가졌고, 이제는 수업시간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잠언 말씀을 교수와 생도들이 합독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교수님들께서 내주시는 과제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는 학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문득 처음에 목사님께 신학교에 대한 건의를 드리면서 보냈던 메시지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외국의 명문(名門) 대학들은 입학하는 것보다 졸업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 공부를 꾸준히 따라가야 하고, 졸업 전에는 엄격한 논문 심사를 통해 학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학교가 명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중략) 우리 신학교는 생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예수중심의 철학과 정신이 뿌리 깊이 박힐 때까지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기

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 과정에는 교단의 수장이신 목사님과와의 직접적인 면담과 테스트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영·혼·육 간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가고자 하는 방향과 색깔이 (교단과) 다른 사람, 이론과 논리와 세상 철학에 치중하는 사람, 예배와 찬송을 인도하고 설교할 줄 모르는 사람, 봉사하며 섬기는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학교를 오래 다녔어도 사역을 내보내지 않는 구조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신학교의 모든 상황들을 제가 처음에 기도하고 받았던 감동대로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학기 초 신학생들의 입학 면담과 지난 9월 금식수련회를 직접 담당해주셨고, 학기 중에는 ‘목회성장학’ 과목에 출강하시는 등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신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들고,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기르지 않는 법. 생도들은 지금의 모든 교육 훈련과정을 벅차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을 때는 명문 교단, 명문 신학교를 나왔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신혁주 전도사



내 사랑 목화꽃

당신의 얼굴은 호수 위에 백조였죠
만민이 우러러볼 수 있게 세상을 비추셨죠
어둔 밤엔 달빛으로
골목길엔 가로등으로
나그네에게 손전등으로
어둔 방엔 호롱불로
외롭고 고달픈 심령엔 사랑의 불꽃이었죠

당신의 얼굴은
어두운 세상 망망대해
폭풍 속 길 찾아 헤매는 인생 부르는 등대
그 밝은 웃음진 얼굴이었죠

사랑하는 스승을 기리며
朋友

:: 생명의 말씀 ::

염려를 가불하지 말라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학팀이 조사한 결과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 걱정거리 중의 30%는 이미 과거의 일로 지금 와서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10%는 병에 관한 걱정인데 실제로는 거의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실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이유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염려는 신앙생활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염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게 한다. 또한 육체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염려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쁜 세포들이 증가하게 되어 암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잠17:22)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는 목회하면서 두 번 쓰러졌다. 두 번이나 쓰러지고 깨달은 것은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머리털 하나 회고 겸게 할 수 있느냐.’

는 책망의 음성을 듣고서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주의 종은 말씀을 가감 없이 증거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양떼를 축복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해야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한 것이 교만이란 걸 깨달았다.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은 내가 돌아야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할 일은 내가 할 일이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며 믿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 걱정도 팔자라 했던가. 소금이 설까 봐 걱정한다 했던가.

청교도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참새와 물새’라는 얘기가 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참새야, 저 아래 땅 인간들의 모습을 봐. 왜 저렇게 염려하고 근심할까? 참 이상하지?” 그러자 참새가 이렇게 말했다. “아마 재들은 우리처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인가 봐!”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임택함 목사

당신의 ‘가능한 불가능’은 무엇인가요?

저는 12년 차 카피라이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성장하는 12년의 긴 시간 동안 광고를 만들어왔습니다. 화장품부터 학습지, 건강기능식품, 여행사, 전자제품, 커피와 치킨까지 브랜드와 품목이 다양하지요. 광고한 후에 화장품이 완판되고, 치킨이 석 달 만에 100만 마리가 팔리고, 에어컨 매출이 늘고, 광고를 본 사람들이 브랜드에 호감을 느끼게 되면 보람을 느낍니다. 분명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제품의 존재를 알지 못해 사라지는 경우를 보면 광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공하길 원하면 광고하라. 하나님도 광고하셨다.’라는 설교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지만, 정작 저의 삶에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뭐랄까, 광고는 기업이나 제품을 만드는 판매자에게만 필요한 일이라고 협소하게 생각했던 거지요. 작년 저의 첫 책 <일상이 슬로우>를 출간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다가가 휴식과 위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했을 뿐 제가 할 수 있었던 작은 홍보조차 하지 않았지요.

의뢰받은 광고를 만들 때는 세상 적극적으로

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바로 저지만, 일상에서는 쑥스러움이 많아서 남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고 조금이라도 제 자량이 될만한 것은 드러내기가 겸연쩍습니다. 첫 책을 출간했을 때 지인들에게 출간 소식을 알리는 것조차 큰 용기를 내야 했으니까요. 그게 제가 했던 홍보의 끝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건 쑥스러워서 못 하는 사람이야’라는 뿌리 깊은 생각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충분한 명분이 되어주었습니다. 매일 수백 권의 신간이 쏟아지고, 수만 권의 책이 경쟁하는 서점에서 누군가 알아서 제 책을 발견해주길 바랐던 거지요. 얼마나 안일한 소망인가요.

올해 9월, 저의 두 번째 책 <가능한 불가능>이 출간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제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친구와 50만 원을 걸고 내기하면서 시작된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자 인생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온 딱 한 가지를 도전하고 그해 마지막 날 불가능을 이뤄낸 사람에게 상금처럼 돈을 몰아주기로 했었지요. 그 후로부터 저는 매년 하나씩, 불가능을 이뤄낸 값진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9년간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았습니다.

이 책을 출간했을 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건 쑥스러워서

못 하는 사람이야’라는 핑계를 더는 대지 않기로요. 모든 책의 첫 번째 소명은 읽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저의 책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을 책 사진으로 바꾸었고, 게시물 한 번도 올린 적 없는 인스타그램에 책 출간 소식을 알렸습니다. 첫 책을 읽고 리뷰를 올려주었던 얼굴 모르는 분들께 감사 쪽지를 보내며 새 책을 보내드렸고, 지난주에는 저의 고등학교 모교에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원래의 저라면 ‘2시간 동안 어떻게 강연해. 이걸 절대 못 해!’라며 피했을 일이었지만, 더는 그러지 않기로 했으니 부딪혀보기로 한 거지요. 강연을 준비하는 동안 부담이 컸고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강연 날에는 매우, 매우 즐겁게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깨달았죠.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온 일이 사실은 ‘가능한 불가능’이었음을요. 그걸 해낼 능력이 원래 제게 있었음을요. 또 한 번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어느덧 2022년이 두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기 좋은 지금, 책 <가능한 불가능>을 자신 있게 추천 드려봅니다. 분명,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신은혜

JC ACADEMY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랑진 교육관(드림스퀘어) 문의 02. 533. 9191

:: 영생에 이르는 길 ::

왜 내가 하려고 했지?

2년 전부터 사업 중에 발생한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벌써 1심은 지났고 항소심으로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사들의 서면이나 증거를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으로도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지속되었다. 증인신문사항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예상된 질문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잘못된 정보를 아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앞선 질문에 대한 대답과 뒤에 질문한 대답이 다르면 증인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기도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반대로,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동일하게 ‘물론이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상은 동일하나 맥락에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반대 질문도 예측하여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 기일 전에 매일 변호사들과 대어섯 시간씩 쉼 없이 회의를 계속해야 했다. 그러나 준비를 하면 할수록 부족함만 느끼며 불안감과 괴로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매일 출퇴근 때마다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았지만, 실질적인 준비를 함에 있어서 부족함만 느끼게 되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왜 내가 하려고 하지? 난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괴로움과 고통이 갑자기 사라지고 새 힘이 넘쳤다. 오히려 부

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리라며 조금은 긴장도 풀어진 것 같았다. 그렇게 약 한 달여 간 준비를 마쳤는데도, 증인 선서를 하기 직전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늘 배웠던 대로 거울을 보며 귀신을 쫓고 마음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니 어느새 평안함이 찾아왔다. 증언은 준비한 대로 잘 되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있었으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한 지혜로 모면할 수 있었다. 아직 모든 소송이 끝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긴 기분이 든다. 그 이유는 소송을 내가 하면 이기기 어렵겠지만, 소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이 다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차 다가올 영광의 때가 이를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김대화

포기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하고 설계·감리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국가에서 발주한 수백억 이상의 대형시설을 설계하는 일이라 발주처의 다양한 요구사항, 인허가 문제 등으로 납기일이 다가오면 야근과 주말 출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켜야 하는 저로서는 토요일까지 남들보다 더 성실히 일하며 성과를 냈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주일은 출근 안 하는 것을 양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10년을 일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 거장으로 대접받라.’는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법적으로 설계가 끝나면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업계에서 ‘기술사’하면 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부할 분량이 많고, 바쁠 땐 야근과 주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선배들 대부분은 포기했고, 어렵게 합격하더라도 ‘업무시간에 일 안 하고 공부한 놈’이라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장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라!’는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 점심때 도시락 먹기, 퇴근 후 바로 도서관에서 11시까지 공부하기로 다짐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나름 열심히 6개월을 준비하고 본 첫 번째 시험에서 불합격, 2번째도, 3번째도, 4번째도 불합격.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직장, 건강, 환경 준 것에 감사해라!’는 응답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5번째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7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는데 답을 쓰는 동안 ‘아버지! 감사합니다.’만 나올 정도로 자신 있게 마무리하고 나왔고, 결과는 「상하수도 기술사」 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공공기관 심의 및 자문위원을 맡고 있고, 제가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권한도 생겼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으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송명국 집사

